

생명나눔으로 찾은 희망

부산생명나눔, 명상 걷기대회

함께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본부장 원범 · 이하 부산생명나눔)는 10월 26일 부산 초읍어린이 대공원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광장 일대에서 '제11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명상 걷기대회' 를 개최했다.

행사는 본부장 원범 스님의 대회사에 이어 휠체어 전달식, 하림 스님(미타선원 행복선명상센터장)의 명상걷기 설명 및 걷기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휠체어는 보훈병원 및 나눔과 행복병원 등에 총 5대를 전달했으며 환자 및 가족들도 함께 걷기대회에 참여해 생명나눔 활동의 의미를 전했다. 걷기 대회 후 경품 추첨도 이어졌다.

원범 스님은 "날씨가 정말 맑고 따뜻하다"며 "이렇게 화창한 날 즐겁게 명상을 하고 여러분들 가정도 사회도 맑고 깨끗해지기를 염원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가자"고 격려했다.

한편, 행사에는 본부장 원범 스님, 본부 이사 스님들과 이승표 前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과 800여 명의 부산시민들이 생명을 위한 희망 나눔에 동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관룡사, 국태민안 기도정진

10월 초하루, 산신재 · 용왕재

창녕 관룡사(주지 정안)는 10월 28일 경내 칠성각과 산영각에서 국태민안과 국민화합을 기원하는 산신재와 용왕재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관룡사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국태민안을 위한 기도 정진을 이어오고 있다.

주지 정안 스님은 "화왕산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곳"이라면서 "불의 기운을 다스리고 창건주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을 기리고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화합하며 편안하도록 기원하기 위해 용왕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라8대 사찰인 관룡사는 여행객들의 최적지로 부곡온천과 더불어 역사적 볼거리로 대웅전(보물21호)과 약사전(보물146호)을 비롯해 석조여래좌상(보물519호)과 약사전3층석탑(지방유형문화재11호),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보물295호) 등 문화재를 보유한 전통사찰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농촌 불심 드높이는 문화센터 발전 기원"

Interview

고창교육문화센터 관장 법만 스님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식 개관 앞둔 고창불교회관
준공 검사 마치고 내부공사 중
청소년 · 성인 위한 문화도량

"선운사가 호남불교 중흥의 시작점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이 살아 숨 쉬고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도량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고창종합사회복지관과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 다문화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육아와 노인복지는 안정화됐지만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건립하는 고창불교회관은 이런 수요를 충족하고 교육과 문화를 통한 포교시스템 구축에 큰 기여를 하리라 기대합니다."

올해 10월 준공검사를 마치고 내부 시설공사가 한창인 고창교육문화센터(고창불교회관) 초대관장 법만 스님은 센터의 건립 취지와 목적을 이렇게 밝혔다. 고창읍내 월곡 뉴타운에 자리 잡은 고창불교회관은 지난 2011년 매입한 3,930㎡(1,188평) 대지에 연건평 3,596㎡(1,087평)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진다. 또한 11월 6일 고창 시니어클럽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고창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공사비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내소사, 도솔암, 내장사 등 교구 본말사스님들의 원력이 없었다면 회관 건립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우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과 불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결과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고창불교회관에는 명상실, 시니어클럽, 로컬푸드판매점, 북카페, 육아공동나눔터, 컨벤션홀, 청소년 체험실, 휴게실, 구내식당, 주차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불교의 포교방법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강요에 의한 포교보다 교육과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인 고창의 특수성을 감안해 친환경 농산물 판매점이나 사찰음식점과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운사 대중과 지역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포교로 연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고창불교회관은 명상강좌와 청소년체험강좌, 청소년상담, 요가, 교리강좌, 선 수행, 다도강좌를 개설하고 목공, 서각과 같은 취미활동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 도서관, 공부방, 공동육아시설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관련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 법인도 설립할 방침이다.

"처음에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소년과 성인불자를 기본으로 전 세대에 걸쳐 불교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문화, 복지가 골격을 갖추게 되면 평생 불교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불교종합도량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고창불교회관이 직접적인 생활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 부각된다면 지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불교계의 대사회 역할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불교예술 정수 보인 광주영산재

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 무형문화재 시연행사 참가

불교예술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영산재 시연회가 열렸다.

(사)광주전통불교 영산재보존회(회장 월인)는 10월 26일 광주 빛고을전통문화관에서 제15차 정기 시연회를 갖고 불교예술의 아름다움을 일반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빛고을전통문화관에서 진행한 광주시무형문화재 시연행사인 '무등울림' 의 마지막 행사로, 23호로 지정된 불교영산의식 재현행사였다.

이날 시연회는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담양 용화사 수진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을 비롯해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영산재보존회장 월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영산재는 현세의 모든 중생과 영혼의 세계까지 고통에서 해탈과 극락왕생을 목적으로 거행되는 거룩한 불교의 전통"이라며 "향후 전수관을 건립해 젊은 후학들을 발굴 육성하고 문화유산이 길이 보존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광주전통불교 영산재보존회 스님들이 시연행사에서 바라무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시연은 영산재 도량에 불보살과 옹호성중을 청해 모시는 시련을 시작으로 신중작법, 대령관욕, 지장청, 관음시식, 봉송까지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이수자인 혜령 스님(율곡사, 범음분야 지정자), 호산 스님(담양 무각사, 바라분야 지정자), 월인 스님(법륜사, 작법분야 지정자) 등이 직접 의식에 참여해 바라, 범음, 작법을 시연했다.

한편 광주전통불교영산재는 지난 1981년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위령대재를 시작으로 1991년 봉서사와 1992년 일응 스님에게 7년간 사사해 지난 2014년 광주시로부터 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개산 기념한 경로잔치마당

울산 벽선암, 78주년 개산대재 행사서



울산 벽선암(주지 혜진)은 10월 29일 경내에서 개산 78주년 경로잔치 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는 자비도량참법 기도 회향 및 예불로 시작해 1부 식전 공연이 펼쳐졌다. 2부 법요식은 △타종 △개회식 △육법공양 △보살무 △삼귀의 △반야심경 △찬불가 △발원문 △인사말 △축사 △청법가 △회주 효산 스님 법어 △사홍서원 △헌향식 순으로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원효 · 설총 · 요석공주 기리다

경산 반룡사, 제12회 원효성사 등 다례재



경산 반룡사(주지 혜해)는 10월 26일 제12회 원효 · 설총 · 요석공주 다례재를 봉행했다. 반룡사 주지 혜해 스님은 "천년고찰 반룡사는 석조유물이 도지정문화재(제675호)로 지정된 사찰로 2008년부터 거행해온 원효성사, 설총선생, 요석공주에 대한 육법공양 다례재, 왕재산행. 어르신잔치 등은 지역의 축제한마당으로 발전했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1회 군위 용지골 문화축제

세계불교지장선원종, 10월 26일 문화행사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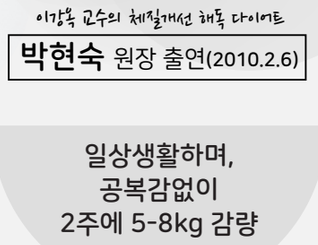


사단법인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총본산 지장선원(주지 혜봉)은 10월 26일 군위군 화북리 모닥불 행복캠핑장에서 제1회 화산 용지골 모닥불 문화 · 예술 · 행복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장선원 주지 혜봉 스님과 서보현 수필가, 오주훈 경북과학대 교수 등 문화예술가 및 지역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경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